은열쇠

The Silver Key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9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Silver Key" (Weird Tales 1929년 1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047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랜돌프 카터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그는 꿈의 문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전까지 그는 매일 밤 공간 너머의 기이하고 고대적인 도시들, 그리고 천상의 바다 건너에 펼쳐진 아름답고도 믿기 힘든 정원들을 여행하며, 단조로운 현실의 삶을 보상받곤 했다. 하지만 중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하자, 그는 이러한 자유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는 꿈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 더 이상 그의 갤리선들은 황금빛 첨탑이 솟은 트란을 지나 우크라노스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다. 코끼리 상단이 향기로운 클레드의 정글을 가로지르며 행진할 수도 없었다. 그곳에는 무늬가 새겨진 상아 기둥을 갖춘 잊힌 궁전들이 달빛 아래에서 허물어짐 없이 아름답고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현실의 실체를 너무 많이 읽었고, 너무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선의를 가진 철학자들은 그에게 사물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살피고, 자신의 생각과 공상을 형성하는 과정들을 분석하라고 가르쳤다. 경이로움은 사라졌다. 그는 삶이란 그저 뇌 속에 펼쳐진 일련의 그림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실재하는 사물에서 비롯된 그림이나 내면의 꿈에서 비롯된 그림이나 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이유도 없었다. 관습은 눈에 보이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미신적인 경외심을 갖도록 그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였고, 환상 속에 머무는 것을 남몰래 부끄럽게 만들었다. 현자들은 그의 단순한 공상이 어리석고 유치하다고 말했고, 그는 그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 말을 믿었다.

그가 떠올리지 못한 사실은, 현실의 행위들 또한 그 공상만큼이나 어리석고 유치하다는 점이었다. 현실은 오히려 더 황당하기까지 했다. 현실의 행위자들은 그 행위들에 의미와 목적이 가득하다고 착각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은 아무런 목적도 없는 무언가가 무(無)에서 유(有)로, 다시 무(無)로 목적 없이 굴러갈 뿐이다. 그 과정에서 어둠 속을 간간이 깜빡이며 스쳐 지나가는 정신들의 소망이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며 알지도 못한다.

그들은 그를 현실이라는 굴레에 묶어버렸다. 그러고는 세상의 모든 신비가 사라져 버릴 때까지, 눈앞에 놓인 사물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냈다. 그가 불만을 터뜨리며 황혼의 영역으로 도망치고 싶어 할 때마다, 그들은 그를 막아섰다. 그곳은 마법이 마음속의 작고 생생한 파편들과 소중한 기억들을 엮어, 숨 막히는 기대와 꺼지지 않는 환희가 가득한 풍경으로 빚어내는 곳이었다. 대신 그들은 그를 새로 발견된 과학의 경이로움 쪽으로 돌려세웠다. 원자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이로움을 찾고, 하늘의 광활한 차원 속에서 신비를 찾아내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법칙이 정해져 있고 측정 가능한 것들 속에서 그런 축복을 찾아내는 데 실패하자, 그들은 그를 비난했다. 그가 상상력이 부족하며, 현실의 환상보다 꿈속의 환상을 더 선호하는 미성숙한 존재라고 몰아세웠다.

카터는 남들처럼 살아보려 애썼다. 희귀하고 섬세한 영혼이 품은 환상보다는, 세속적인 마음이 느끼는 평범한 사건과 감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듯 행동했다. 꿈속에서 희미하게 기억나던, 백 개의 조각된 문과 칼세도니 돔으로 이루어진 나라스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보다,

현실 속에서 멱따이는 돼지가 내지르는 짐승 같은 고통이나 소화불량에 걸린 농부가 느끼는 고통이 더 중대한 일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카터는 그들의 인도에 따라, 고통과 비극에 대해 정성스럽게 연민을 기르는 법을 익혀 나갔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인간의 모든 열망이 얼마나 얕고 변덕스러우며 무의미한지를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가 지키겠노라 공언하는 그 거창한 이상과 달리, 우리의 실제 충동은 얼마나 공허하게 대비되는가. 그럴 때면 그는 꿈의 허황됨과 인위성을 비웃기 위해 배운 대로, 예의 바른 웃음을 흘리곤 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꿈만큼이나 허황되고 인위적이었다. 오히려 일상은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고, 스스로 이성도 목적도 없음을 인정하기를 어리석게 거부한다는 점에서 꿈보다 훨씬 존중받을 가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일종의 유머리스트가 되어갔다. 일관성이나 모순이라는 진정한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는, 지성 없는 우주 속에서 유머조차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는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속박이 시작된 초기, 카터는 조상들이 보여준 순박한 믿음을 따라 온화한 교회 신앙에 의지했다. 그곳에는 삶으로부터의 탈출을 약속하는 듯한 신비로운 통로가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는 그 신앙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대부분의 신봉자가 보여주는 지루하고 압도적인 권위였다. 그 권위는 메마른 상상력과 미적 감각, 진부하고 따분한 상투성, 그리고 올빼미처럼 엄숙한 태도와 기괴한 진리 주장에 불과했다. 또한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던 원시 인류의 낡은 공포와 추측을, 마치 실재하

는 사실인 양 억지로 붙들려 애쓰는 그 서투른 모습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학이 매 단계마다 부정해 버리는 고대 신화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상의 현실을 만들어 내려 애쓰는 모습은 카터를 지치게 했다. 만약 그 고대 신앙들이 천상적 환상이라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웅장한 의식과 감정의 분출구를 제공하는 데 만족했더라면, 카터도 그 신앙에 애착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못된 진지함이 그 애착마저 죽여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옛 신화를 버린 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카터는 그들이 신화를 버리지 않은 자들보다 훨씬 더 추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름다움이란 조화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목적 없는 우주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이란, 그저 앞서 존재했던 꿈과 감정들에 조화를 이루는 것 외에는 어떠한 기준도 가질 수 없다. 그 꿈과 감정들이야말로 혼돈의 나머지 조각들 사이에서 우리의 작은 세계를 맹목적으로 빚어낸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이 단지 관점에 따라 나타나는 장식적인 열매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그 가치는 오직 우연이 만들어낸 우리 조상들의 사고와 감정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있을 뿐이며, 그 세부적인 양상은 인종과 문화마다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통째로 부정하거나, 혹은 짐승이나 미개한 농민들과 공유하는 조잡하고 막연한 본능으로 치부해 버렸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고통과 추함, 그리고 불균형 속에서 악취를 풍기며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여전히 구속하고 있는 것들과 다를 바 없는 구습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우스꽝스러운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다. 그들은 공포와 맹목적인 경외심이 만든 거짓 신들을 버리고, 방종과 무질서라는 새로운 신과 맞바꾼 셈이었다.

카터는 이러한 현대적 자유를 깊이 향유하지 못했다. 그 자유는 너무나 값싸고 불결하여, 오직 아름다움만을 사랑하는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 또한 그 자유의 옹호자들이 내세우는 빈약한 논리에도 거부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내버린 우상들에게서 거두어낸 신성함을, 마치 야만적인 충동에 금칠이라도 하듯 덧씌우려 했다. 카터는 그들 대부분이 버려진 사제술과 마찬가지로, 삶에 인간이 부여한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았다. 과학적 발견들이 자연의 무의식과 비인격적인 비도덕성을 비명 지르듯 증명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미(美)의 영역을 넘어선 윤리와 의무라는 조잡한 관념을 차마 내려놓지 못했다.

그들은 정의와 자유, 일관성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편협하고 왜곡된 채, 옛 믿음과 함께 옛 지식과 관습을 내던졌다. 하지만 정작 그 지식과 관습이야말로 지금의 사고와 판단을 만들어낸 유일한 토대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고정된 목적도, 안정적인 기준점도 없는 무의미한 우주에서, 그 지식과 관습이야말로 유일한 길잡이이자 척도였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환경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은 방향과 극적인 흥미를 잃고 공허해졌다. 결국 그들은 권태를 잊기 위해 분주함과 가짜 유용성, 소음과 흥분, 야만적인 과시와 동물적인 감각 속에 자신을 몰아넣으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들해지거나 실망을 안겨줄 때, 혹은 혐오감으로 인해 구역질이 날 때면, 그들은 냉소와 비통함을 키우며 사회 질서를 비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근간이 옛 신들만큼이나 가변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한순간의 만족이 곧 다음 순간의 파멸이라는 사실도 말이다. 고요하고 영속적인 아름다움은 오직 꿈속에만 존재한다. 세상이 현실만을 숭배하느라 어린 시절의 비밀과 순수함을 내던졌을 때, 그 위안 또한 함께 버리고 만 것이다.

공허함과 불안이 뒤섞인 이 혼돈 속에서, 카터는 명석한 사고와 고결한 혈통을 지닌 사람답게 살아가려 애썼다. 시대의 조롱 아래 꿈들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그는 그 무엇도 믿을 수 없게 되었지만, 조화로움을 향한 갈망 덕분에 인류의 방식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는 인간들이 세운 도시를 무표정하게 거닐며 한숨을 내쉬었다. 눈앞의 풍경 중 그 무엇도 온전히 실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높은 지붕 위로 쏟아지는 노란 햇살의 잔상이나, 저녁 어스름 속 가로등 불빛에 비치는 난간 달린 광장의 모습은 그저 한때 꾸었던 꿈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그 꿈들은 이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아득하고 영적인 땅에 대한 향수만을 불러일으켰다. 여행은 그저 기만일 뿐이었다. 처음부터 프랑스 외인부대에서 복무했음에도, 대전쟁조차 그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한동안 친

구를 사귀어 보려 노력하기도 했으나, 이내 그들의 투박한 감정과 천박하고 세속적인 시야에 염증을 느끼고 말았다. 그는 친척들과 멀리 떨어져 연락 없이 지내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들은 카터의 정신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할아버지와 종조부 크리스토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들마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는 꿈을 꾸는 능력을 잃었을 때 멈추었던 집필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만족감이나 성취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정신에는 지상의 속박이 짓누르고 있었고, 예전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가 세운 황혼녘의 미나레트들은 냉소적인 유머에 의해 무너져 내렸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세속적인 두려움은 요정의 정원에 피어난 섬세하고 경이로운 꽃들을 시들게 했다. 경건함을 가장한 관습은 등장인물들에게 유치한 감상주의를 쏟아부었고, 현실의 중요성과 인간의 사건 및 감정이 실재한다는 신화는 그의 고결한 환상을 얄팍한 우화나 저급한 사회 풍자로 타락시켰다.

그의 새 소설들은 과거의 작품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이 소설들이 공허한 대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소설들을 불태워 버리고 글쓰기를 그만두었다. 그 소설들은 매우 품격이 넘쳤고, 자신이 가볍게 스케치한 꿈들을 세련된 태도로 비웃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세련됨이 소설의 생명력을 모두 앗아갔음을 깨달았다.

* * * * *

그 일이 있은 후, 카터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해독제로 기이하고 별난 관념들에 몰두하며 의도적으로 환상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곧 그 빈약함과 무미건조함을 드러냈다. 카터는 대중적인 오컬트 교리들이 과학의 교리만큼이나 메마르고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그 교리들은 과학이 가진, 최소한의 구제책이라도 될 수 있는 '진실'이라는 미약한 위안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저급한 어리석음과 거짓,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고는 결코 꿈이 아니었다. 그보다 높은 차원의 사고를 훈련한 정신에게 그런 것들은 삶으로부터 도망칠 탈출구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카터는 더 기묘한 책들을 사들였고, 기괴할 정도로 박식하며 더욱 깊고 두려운 지식을 가진 이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남들이 거의 발을 들이지 않는 의식의 비의를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은밀한 구렁텅이와 전설, 그리고 아득한 태고의 시대에 관한 것들을 배웠으며, 그 지식들은 이후로도 줄곧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카터는 더 희귀한 차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변화하는 기분에 맞춰 보스턴의 집을 꾸몄다. 기분마다 머물 방을 따로 마련하여, 각 방에는 그 분위기에 맞는 색을 입히고 어울리는 책과 물건들을 배치했다. 또한 빛과 열기, 소리와 맛, 그리고 향기까지도 그 기분에 딱 맞는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갖추어 두었다.

한때 그는 남부에 사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남자는 인도와 아라비아에서 밀수된 선사 시대의 서적과 점토판에 적힌 신성모독적인 내용들을 읽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기피와 두려움의 대

상이 되어 있었다. 카터는 그를 찾아가 7년 동안 함께 지내며 학문을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 이름 모를 고대의 묘지에서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두 사람이 들어갔으나, 살아 돌아온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 후 카터는 뉴잉글랜드에 위치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마녀들이 출몰하는 무시무시한 옛 도시 아컴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곳의 백발이 성성한 버드나무와 위태롭게 흔들리는 박공지붕 사이, 어둠 속에서 여러 경험을 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광기에 사로잡혔던 어느 조상의 일기 중 특정 페이지들을 영원히 봉인해 버렸다.

하지만 이런 공포들은 그를 현실의 가장자리까지만 데려갔을 뿐, 그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진정한 꿈의 세계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쉰 살이 된 카터는 절망했다. 아름다움을 누리기엔 너무나 분주하고, 꿈을 꾸기엔 너무나 영악해진 이 세상에서, 그는 더 이상 안식도 만족도 찾을 수 없으리라 믿었다.

마침내 현실의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카터는 은둔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꿈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을 아련하고도 파편적인 기억 속에서 되새길 뿐이었다.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가 다소 어리석게 느껴지던 차에, 그는 남미의 한 지인으로부터 고통 없이 망각의 세계로 인도해 줄 기이한 액체를 얻었다. 하지만 관성적인 태도와 습관의 힘 때문에 그는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카터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옛 시절의 회상 속에 머물렀다. 그는 벽에 걸려 있던 기묘한 장식물들을 떼어내고, 어린 시절의 집 모습 그

대로를 재현하기 위해 가구를 다시 배치했다. 보랏빛 유리창과 빅토리아 양식의 가구들까지, 모든 것을 예전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차라리 더 머물기를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젊은 시절의 흔적을 간직한 채 세상과 단절되어 지내온 탓에, 삶의 세련된 모습들은 그에게 너무나 멀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괴리감이 얼마나 컸던지, 밤마다 잠결에 마법 같은 기운과 어떤 기대감이 다시금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난 수년간 그의 잠자리는 평범한 이들이 겪는 일상적인 꿈의 뒤틀린 잔상들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기이하고 거친 무언가가 번뜩이며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팽팽하고 선명한 영상으로 보여주며, 아주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사소한 것들을 떠올리게 했다.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이 깃든, 모호하면서도 실재적인 무언가가 꿈속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깨어나곤 했다. 두 분 모두 이미 25년 전 무덤에 묻힌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그에게 은열쇠를 상기시켰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나타난 회색빛 노학자는, 자신들의 고대 혈통과 그 혈통을 이은 섬세하고 예민한 이들이 겪었던 기이한 환상들에 대해 길고도 간절하게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사라센인들의 거친 비밀을 배우다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만, 불타는 눈을 가진 십자군에 대해 말했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마법을 연구했던 초대 랜돌프 카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일럼 마녀 재판에서 간신히 교수형을 면했던 에드먼드 카터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에드먼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커다란 은열쇠를 골동품 상자에 넣어 보관했었다. 카터가 잠에서 깨기 전, 인자한 방문객은 그 상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그것은 기괴한 모양의 뚜껑이 달린 고풍스러운 참나무 상자였으며, 지난 2세기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잠들어 있던 신비로운 물건이었다.

거대한 다락방의 먼지와 그림자 속에서 카터는 그것을 찾아냈다. 높은 궤짝의 서랍 맨 끝, 멀찍이 떨어진 채 잊힌 물건이었다. 크기는 가로세로 한 자 남짓한 정사각형이었는데, 고딕 양식으로 새겨진 조각들이 어찌나 기괴하고 두려운지 에드먼드 카터가 감히 그 상자를 열어본 이가 이후로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갈 정도였다. 상자를 흔들어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기억조차 나지 않는 향신료의 신비로운 향기가 배어 나왔다. 그 안에 열쇠가 들어 있다는 말은 그저 막연한 전설에 불과했고, 랜돌프 카터의 아버지조차 이런 상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상자는 녹슨 철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위압적인 자물쇠를 열 방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카터는 이 상자 안에 잃어버린 꿈의 문을 여는 어떤 열쇠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열쇠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늙은 하인이 조각된 덮개를 억지로 열었다. 그는 검게 변한 나무 위로 비죽이 솟아오른 흉측한 얼굴들과,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한 친숙함에 몸을 떨었다. 덮개 안에는 변색된 양피지에 싸인 거대한 열쇠가 들어 있었다. 빛바랜 은으로 만들어진 그 열쇠는 기묘한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뒤덮여 있었으나, 그 문양을 읽어낼 수 있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

다. 양피지는 꽤 두툼했는데, 그 안에는 고대의 갈대로 쓴 듯한 미지의 언어와 기이한 상형문자만이 가득했다. 카터는 그 글자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어느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서 자정 무렵 홀연히 사라져 버린, 남부의 그 무시무시한 학자가 소유했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보았던 글자들이었다. 그 학자는 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늘 몸서리쳤고, 카터 역시 지금 몸서리치고 있었다.

그는 은열쇠를 깨끗이 닦아, 향긋한 냄새가 나는 오래된 참나무 상자에 담아 매일 밤 곁에 두었다. 그사이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다. 꿈속에는 옛 시절의 기이한 도시나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 따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꿈이 지닌 목적만큼은 분명한 형체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꿈은 세월을 거슬러 그를 불러내고 있었다. 마치 조상들의 의지가 한데 모인 듯, 그를 숨겨진 혈통의 근원지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카터는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 오래된 것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같이 북쪽의 언덕들을 떠올렸다. 유령이 출몰하는 아컴과 거세게 흐르는 미스카토닉 강, 그리고 그의 일족이 살던 외딴 시골집이 있는 그곳을.

* * * * *

가을의 침울한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카터는 기억 속의 옛길을 따라 길을 나섰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언덕과 돌담이 둘러싼 초원, 멀리 보이는 골짜기와 숲이 우거진 산등성이를 지났다. 굽이진 길과 아늑하게 자리 잡은 농가들을 지나자, 나무나 돌로 만든 소박한 다리들이 여기저기 놓인 미스카토닉 강의 수정 같은 물줄기가 나타

났다. 길의 한 굽이에서 그는 거대한 느릅나무 무리를 발견했다. 백오십 년 전, 그의 조상이 기이하게 자취를 감췄던 바로 그곳이었다. 나무 사이로 의미심장한 바람이 불어오자 카터는 몸서리를 쳤다.

그다음에는 마녀였던 노파 구디 파울러의 허물어져 가는 농가가 나타났다. 작고 사악해 보이는 창문들이 달린 그 집은 북쪽 면의 거대한 지붕이 땅에 닿을 듯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었다. 카터는 그 집을 지나칠 때 차의 속도를 높였다. 그는 어머니와 그 선조들이 태어난 언덕에 올라서고 나서야 비로소 속도를 줄였다. 그 언덕 위에는 오래된 백색 저택이 여전히 위엄 있게 서 있었다. 저택은 도로 너머로 펼쳐진, 숨이 막힐 듯 아름다운 바위 언덕과 푸른 계곡의 파노라마를 굽어보고 있었다. 지평선 너머로는 킹스포트의 첨탑들이 멀리 보였고, 가장 먼 배경에는 고대의 꿈을 머금은 듯한 바다의 흔적이 어렴풋이 비쳤다.

이윽고 40년 넘게 보지 못했던 옛 카터 가문의 저택으로 향하는 가파른 경사로가 나타났다. 그 발치에 다다랐을 때 이미 오후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카터는 언덕 중턱의 굽이진 길목에서 잠시 멈춰 섰다. 서쪽에서 기울어진 태양이 쏟아내는 마법 같은 빛줄기가 펼쳐진 들판을 황금빛 영광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최근 그가 꾼 꿈속의 기묘한 예감과 낯선 분위기가 이 고요하고 비현실적인 풍경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듯했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 물결치듯 빛나는 인적 없는 벨벳 같은 잔디밭, 산맥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보랏빛 구릉을 돋보이게 하는 요정의 숲, 그리고 그림자 속으로 깊게 파고든 유령 같은 숲의 계곡을 바라보며 카터는 다른 행성의 미지의 고독을 떠올렸다. 계곡 아래 습한 구

덩이에서는 뒤틀리고 부풀어 오른 나무뿌리 사이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낮게 웅얼거리고 있었다.

그가 찾고자 하는 영역에는 모터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숲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커다란 은열쇠를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언덕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북쪽을 제외하면 나무들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숲은 그를 완전히 집어삼킨 듯했다. 카터는 그 집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30년 전 기이한 종조부 크리스토퍼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가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둔 탓에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소년 시절, 그는 그곳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했고, 과수원 너머 숲속에서 기이하고 경이로운 광경들을 발견하곤 했다.

밤이 가까워지자 그의 주변으로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한때 오른쪽 나무 사이로 틈이 벌어지며 멀리 황혼에 잠긴 초원이 수 리 밖까지 펼쳐졌다. 그 너머로 킹스포트 센트럴 힐에 자리한 오래된 회중교회의 첨탑이 보였다. 저무는 햇살을 머금은 첨탑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작은 원형 창문들은 반사된 불빛을 받아 타오르는 듯했다.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문득 소스라치며 깨달았다. 방금 본 광경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상일 것이라고. 그하얀 옛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헐려 그 자리에 회중교회 병원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그 병원에 관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었다.

신문은 병원 아래 암석 언덕에서 발견된 기이한 굴이나 통로들에 대해 전하고 있었다.

당혹감에 빠져 있던 그의 귓가로 웬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카터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다시금 깜짝 놀라고 말았다. 늙은 베니자 코리는 그의 크리스토퍼 삼촌이 고용했던 일꾼이었다. 카터가 소년 시절 삼촌의 집을 방문하던 그 먼 옛날에도 그는 이미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다. 지금쯤이면 분명 백 살은 훌쩍 넘었을 터였으나, 그 가느다란 목소리는 분명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구체적인 단어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뇌리에 박히는 듯한 그 특유의 어조만큼은 틀림없었다. '늙은 베니'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랜디 군! 랜디 군! 어디 있는 게야? 아주 마사 숙모를 놀라 자빠지게 만들 작정이야? 오후에는 집 근처에 꼭 붙어 있고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거늘! 랜디! 랜--디! 세상에, 숲속으로 도망쳐 다니는 데는 저놈이 제일이야. 숲 위쪽 구역에 있는 뱀굴 근처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절반은 될 테니! 이봐, 랜--디!"

* * * * *

랜돌프 카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멈춰 서서 손으로 눈을 비볐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었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곳들로 너무 멀리 떠돌아다닌 탓에, 이제는 변명의 여지 없이 늦어버리고 말았다. 휴대용 망원경만 있었다면 킹스포트 교회 첨탑에 걸린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미처 시간을 확인하지 못

했다. 다만 자신이 늦었다는 사실만큼은 매우 기이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작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블라우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확인했다. 망원경은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언젠가 어느 상자 안에서 발견했던 커다란 은열쇠가 들어 있었다. 언젠가 크리스 삼촌이 열지 않은 오래된 상자 안에 열쇠가 들어 있다는 기묘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마사 숙모는 이미 기괴한 공상에 사로잡힌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게 아니라며 말을 뚝 끊어버렸다. 카터는 열쇠를 정확히 어디서 찾았는지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이 무척 혼란스러웠다. 보스턴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던 것 같기도 했다. 상자를 여는 것을 도와주고 입을 다물어주는 대가로 파크스에게 일주일 용돈의 절반을 쥐여주었던 희미한 기억도 떠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파크스의 얼굴이 아주 낯설게 떠올랐다. 마치 그 활기 넘치고 자그마한 런던내기(코크니)의 얼굴 위로 오랜 세월의 주름이 내려앉은 듯한 모습이었다.

"랜디! 랜디! 어이! 어이! 랜디!"

흔들리는 등불 하나가 검은 굽잇길을 돌아 나타났다. 그러자 노인 베니야는 침묵에 잠겨 어리둥절해하던 순례자의 형체 위로 달려들었다.

"이놈아, 거기 있었구나! 머릿속에 혀라도 달아놓은 게냐, 어찌 대답한 마디가 없어! 반 시간 전부터 불렀는데, 진작에 내 목소리를 들었을 것 아니냐! 해가 진 뒤에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네 마사 아주머니가 얼마나 안절부절못하시는지 모르는 게냐? 네 크리스 삼촌이 돌아오면 꼭

일러줄 테다! 이 시간에 이런 숲속을 돌아다니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았어야지!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아주 많단다. 어서 오렴, 랜디 도련님. 안 그러면 한나가 저녁 식사를 더는 차려두지 않을 게다!"

랜돌프 카터는 높은 가을 나뭇가지 사이로 경이로운 별빛이 어른거리는 길을 따라 끌려가듯 걸어 올라갔다. 멀리 굽이진 길 너머로 작은 창문들이 노란 빛을 내뿜자 개들이 짖어댔다. 어스름한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박공지붕이 검게 솟아 있는 탁 트인 언덕 위로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반짝였다. 마사 아주머니는 문가에 서 있었는데, 베니자가 몰래 빠져나갔던 카터를 밀어 넣었음에도 그리 심하게 꾸짖지는 않았다. 아주머니는 크리스 삼촌을 잘 알았기에, 카터 가문의 혈통이라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랜돌프는 은열쇠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 저녁을 먹었으며,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항의했다. 때로는 깨어 있을 때 꾸는 꿈이 더 선명했기에, 그는 그 은열쇠를 사용하고 싶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랜돌프 카터는 곧장 위쪽 나무 숲으로 달려 나가려 했다. 하지만 크리스 삼촌이 그를 붙잡아 아침 식탁 옆 의자에 억지로 앉히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카터는 누더기 양탄자가 깔리고 서까래와 기둥이 그대로 드러난 낮은 천장의 방 안을 초조하게 둘러보았다. 그는 뒷창문의 작은 납유리창을 과수원 나뭇가지가 긁어대는 소리가 들릴 때에야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나무와 언덕은 그와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었고, 그곳은 카터의 진정한 고향이자 시간이 멈춘 듯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자유로운 몸이 된 카터는 블라우스 주머니 속의 열쇠를 더듬어 확인했다. 안도감을 느낀 그는 과수원을 가로질러 언덕 너머로 뛰어갔다. 그곳에는 나무가 우거진 언덕이 다시 솟아올라, 나무 한 그루 없는 구릉보다도 더 높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숲의 바닥은 이끼로 뒤덮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희미한 빛 속에서 이끼 낀 거대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불분명하게 솟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신성한 숲의 뒤틀리고 부풀어 오른 나무줄기들 사이에 놓인 드루이드의 선돌 같았다. 언덕을 오르던 랜돌프 카터는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을 하나 건넜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 소리는, 숨어 있는 판(faun)과 에기판(ægipan), 그리고 드라이어드들에게 룬 문자로 된 주문을 읊조리는 듯했다.

그는 숲의 경사면에 자리 잡은 기묘한 동굴에 다다랐다. 마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두려운 '뱀의 굴'이었다. 베니야는 그곳에 대해 그에게 몇 번이고 거듭 경고했었다. 동굴은 깊었다. 랜돌프를 제외한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만큼 아주 깊었다. 소년은 가장 멀리 떨어진 어두운 구석에서 틈새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틈은 더 높은 곳에 있는 석실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은 마치 화강암 벽면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손길로 빚어진 듯한 기묘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으스스하고도 무덤 같은 장소였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거실의 성냥갑에서 슬쩍 훔쳐 온 성냥으로 앞을 밝히며,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열망에 사로잡힌 채 마지막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 왜 자신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먼 벽 쪽으로 다가갔는지, 왜 본능적으로 커다란 은열쇠를 꺼내 들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춤을 추듯 발걸음을 옮기던 그는 자신이 늦은 것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정오의 식사 종소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꾸지람을 들었을 때도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

랜돌프 카터의 먼 친척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그가 열 살 되던 해,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이다. 시카고에 사는 그의 사촌 어니스트 B. 애스핀월은 카터보다 열 살이나 많았는데, 1883년 가을 이후 소년에게서 나타난 변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랜돌프는 다른 이들은 좀처럼 볼 수 없는 환상적인 광경들을 목격한 듯 보였고, 지극히 일상적인 사물에 대해 보이는 태도 또한 기이할 정도로 이상했다. 요컨대 그는 마치 예언이라는 기묘한 재능을 얻은 것 같았다.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던 일들이 나중에 그 기묘한 예감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밝혀질 때마다, 그는 유독 특이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역사의 책장에 새로운 발명품과 이름, 그리고 사건들이 하나둘 기록될 때마다, 사람들은 가끔 경이로움에 휩싸여 과거를 회상하곤 했다. 카터가 아주 오래전, 당시로서는 까마득한 미래와 의심할 여지 없이 연결된 말들을 무심코 내뱉었던 일을 말이다. 정작 카터 자신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 특

정한 사물들이 자신에게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기억나지 않는 어떤 꿈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 징후는 이미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떤 여행자가 프랑스의 벨루아 앙 상테르라는 마을을 언급했을 때 카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었다. 그리고 1916년, 그가 제1차 세계 대전에 외인부대로 참전하여 바로 그곳에서 거의 죽을 뻔한 중상을 입었을 때, 친구들은 그 일을 기억해 냈다.

카터가 최근에 실종되면서, 그의 친척들은 온통 이 이야기뿐이다.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변덕을 묵묵히 견뎌온 늙은 하인 파크스는, 카터가 최근에 발견한 열쇠를 챙겨 홀로 자동차를 몰고 떠나던 그날 아침에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파크스는 열쇠가 담긴 오래된 상자를 열 때 카터를 도와주었는데, 상자에 새겨진 기괴한 조각들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상자 자체에서 풍기는 정체 모를 기이한 느낌 때문이기도 했다. 카터는 떠나면서 아컴 근처에 있는 조상들의 옛 고향을 방문하러 간다는 말을 남겼다.

엘름 산 중턱, 옛 카터 저택의 폐허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람들은 길가에 정갈하게 세워진 그의 자동차를 발견했다. 차 안에는 향긋한 나무로 만든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상자에 새겨진 조각들은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기괴했다. 상자 안에는 기묘한 양피지 한 장만이 들어 있었다.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언어학자나 고문서학자 그 누구도 해독하거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비가 내린 지 오래되어 발자국은 모두 씻겨 내려갔으나, 보스턴에서 온 조사관들은 카터 저택의 쓰러진 목재들 사이에서 발견된 흔적들에 대해 언급했다. 조사관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치 누군가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폐허 속을 더듬으며 뒤졌던 것 같다고 했다. 산비탈 너머 숲 속 바위 사이에서 발견된 평범한 흰 손수건 한 장이 있었지만, 그것이 행방불명된 카터의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랜돌프 카터의 유산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결정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나는 그가 죽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 환상과 현실 사이에는 오직 꿈꾸는 자만이 알아챌 수 있는 뒤틀린 틈새가 존재한다. 내가 아는 카터라면, 아마도 그 미로를 가로지를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나도 알 수 없다. 그는 잃어버린 꿈의 땅을 원했고, 어린 시절의 나날을 갈망했다. 그러다 그는 열쇠 하나를 찾아냈고, 나는 그가 그 열쇠를 이용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해냈으리라 믿는다.

[삽화: "그곳에서 수염이 나고 지느러미가 달린 그노리들이 자신들의 미로를 건설한다."]

그를 만나게 되면 직접 물어볼 생각이다. 우리 둘 다 자주 드나들던 어느 꿈의 도시에서 조만간 그와 마주칠 것 같기 때문이다. 스카이 강 너머 울타르에서는 일렉-바드에 새로운 왕이 오팔 왕좌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일렉-바드는 황혼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유리 절벽 꼭대기에 탑들이 솟아 있는 환상적인 마을이다. 그 바다 아래에서는 수

염 난 물고기 형상의 그노리들이 기이한 미로를 짓는다곤 한다. 나는 이 소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것만 같다. 분명 나는 그 거대한 은열쇠를 마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은열쇠에 새겨진 수수께끼 같은 아라베스크 문양 속에는, 눈먼 채 비인격적으로 흘러가는 이 우주의 모든 목적과 신비가 상징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